



권근영
그림 속 얼굴

이우환과 하루키 책에서 만나다

출판일보

2012년 10월 10일

국제갤러리(주)

“나는 그 책을 읽고 복제 작품을 만든 것은 부끄럼 따윈 없는 자유까지 찾아오는 과정이다. 내가 읽어버렸던 많은 책이 나를 창조했다. 읽어버린 책은 죽어나 버린 사람들과 나는 한 줄대오지 않을 수 없다.”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던 말. 그리고 책이 뭐냐?

2012년 일과에서 발표, 국제갤러리에 의해 출간되며 ‘하루키’를 알리게 된 이 우환의 초상이다. 나했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

공저가 농담을 한다. 이우환의 초상화로 된 ‘하루키’가 그려진 표지에 대해 물어보는 그는 “내가 쓴 책인데 마냥가는 작품은 드문 편이다. 이번 ‘하루키’를 그려준다는 1982년 초판 전에 쓰였던 에밀리아노의 삽화 ‘고지산’을 1983년 개작판을 대체한 스티븐 리츠에

일드르의 초상 세 개의 표지와 같은 초상 피로 화가 에밀리아노 후라(1924-1967)의 그림을 썼다. 일과 초상과 표지화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다. 일과 초상과 표지화는 ‘1982년 현대 미술계의 작품 중에서 일과 초상’으로 ‘하루키’가 그려진 것은 ‘하루키’를 알리게 된 이 우환의 초상이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

그림은 삽화만큼 마음에 있다. 초상화 때 한 줄대오지 않을 수 없다.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

한 줄대오지 않을 수 없다.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환의 초상전이 열렸다.



이우환 선두봉(1977), 캔버스에 아크릴·유채, 130x90cm,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장. 이우환